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베드로와 성 바울로 사도

마태오 제4주일

세례자 요한 탄생

제3조, 조과복음 4

성 요한 크리소스토م 성찬예배에서

- 제3조 부활 찬양송 / 82, A 213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주일 시기송 / 85, A 226
- 세례자 요한 찬양송 / 160, B 152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 85, A 226
- 사도경 : 로마 13, 11-14, 4 / 봉독서 441
- 복음경 : 루가 1, 25, 57-68, 76, 80.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구원의 말씀 성 사도 베드로와 바울로

6월 29일 우리 교회는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두 사도 성 베드로와 성 바울로를 기념합니다.

성 사도 베드로는 어부 생활을 하다 그리스도를 따라나섰고 사도 중에 그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성 사도 바울로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자였지만 회심한 뒤 사도들 중에 그 누구보다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신약성서에는 14편의 성 사도 바울로 서신과 2편의 성 사도 베드로 서신이 있습니다. 이 16편의 서신은 우리 교회의 굳건한 주춧돌입니다.

성 사도 바울로의 서신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인사와 축복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합시다.

“형제 여러분,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며 내 권고를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리고 뜻을 같이하여 평화롭게 사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 주실 것입니다.”(고린토2서 13:11) 또한 성 사도 베드로의 신앙고백의 말씀을 되새깁시다. “주여,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마태오 16:16)

주일에 가져야 할 세 가지 ‘감사한 마음’



매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교인은 하느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 ‘감사한 마음’은 예배에 참여하는 이라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지녀야 하고, 자신의 입과 참된 마음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첫 번째 ‘감사한 마음’

내가 사는 지역에 정교회 성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당연하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교회가 그 지역에 전파되지 않았거나 혹은 여전히 예전부터 진정한 하느님을 믿는 것이 금지되었거나 하는 이유로 그들이 사는 지역에 정교회 성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지역에 성당이 있다고 하나 성당에서 예배를 집전할 성직자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는 지역에 있는 성당에서 거룩한 신비의 성찬예배가 거행되어 매 주일 우리 주변에, 우리 집에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은 하느님의 큰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한 마음’

정교회 성당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당연시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있다거나 혹은 요양원에 머물고 있다거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매 주 이러한 기쁨의 순간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갖게 되었을 수도 있고, 그 밖에 다른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감사한 마음’

정교회 성당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 또한 당연한 일은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듯이 나 또한 주일예배에 참석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찬예배가 거행되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하느님께 경배를 드리는 시간에 나는 잠을 자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여행을 가거나 등산을 한다거나 운동을 하러 가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주변에 정교회 성당이 있고, 원하는 대로 매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이 모든 은총을 베푸신 하느님께 세 배의 찬양을 드리고 큰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 암브로시オス 조성암 대주교



가라앉는 여객선 2

☞ 지난 주 주보에서 계속됩니다.

배는 마침내 물 속으로 가라앉아 버리고 말았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승객들과 함께.....

남자는 집으로 돌아가, 혼자서 딸을 길렀다. 여러 해가 지나 남자마저 죽고 난 뒤, 딸은 우연히 아버지의 일기장을 보게 되었고, 배에 얹힌 모든 이야기를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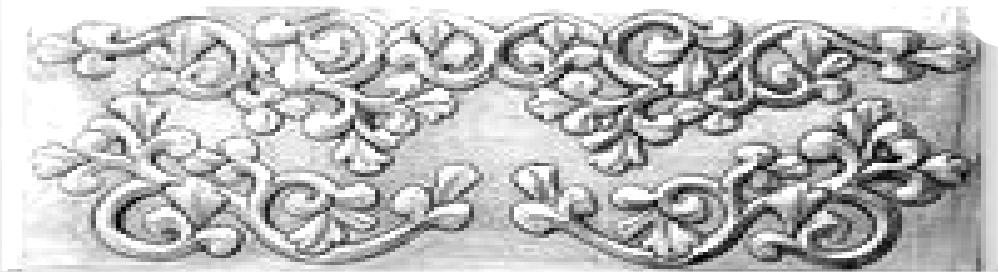
딸은 자신의 어머니가 여객선에 오르기 얼마 전, 불치의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다. 중대한 순간에 아버지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행한 것이었다. 곧,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딸을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

“나는 그 배 위에서 당신과 함께하고 싶었소. 당신과 함께 죽고 싶었다오. 하지만 우리 딸을 위해 나는 당신을 혼자 내 버려두는 길을 택한 것이오.”라고 그는 자신의 일기에 썼다.

선생님이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 학생들은 한동안 조용히 앉아있었다. 이어서 선생님은 이 이야기의 의미와 교훈을 말해주었다.

“선과 악은 복잡하며, 때로는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표면적인 것만을 바라보면 안되며, 또한 먼저 어떤 이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채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된다.”

▶ 아타나시아



인천 성 바울로 성당 축일을 축하합니다

6월 29일(금) 인천 성 바울로 성당 축일을 축하합니다. 하느님의 축복과 성 바울로 사도의 중보로 모든 교인들이 영적 신앙생활에 정진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어 나가길 기원합니다.

소식

대교구

- 여름 수련회 ▶ 올해도 여름 수련회(English Camp)가 춘천 성 보리스 성당 사회복지관에서 초등부(7월 30일~8월 4일), 중·고등부(8월 4~6일), 신데즈모스(7월 27~29일) 수련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유익하고 재밌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아이들의 영적 신앙생활에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거룩한 사업인 수련회에 부모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성당 사무실로 신청해 주십시오.
참가비는 초등부 : 15만 원 / 중·고등부 : 5만 원 / 신데즈모스 : 5만 원입니다.

- 정교 출판사 ▶ 신간 『부와 가난 : 거룩한 교부들의 설교』출간, 『비잔틴 신학』개정판 출간
‘부와 가난’의 문제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있었습니다. 교부들의 시대에도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과 빈부의 격차로 인해 하느님의 형상인 사람이 참으로 사람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교부들은 ‘부와 가난’이라는 문제를 단지 사회적 문제로만 보지 않고 신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솔선하여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 병든 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설교합니다. 물질만능주의, 성공주의, 쾌락주의가 만연한 현대사회에서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우리 위대한 교부들은 어떻게 답하고 있는지 이 책을 통해 들어봅시다. 그리고 교부들의 가르침을 따라 삽시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성화 전시회 ▶ 오늘 6월 24일 성찬예배 후 12시에 개막식을 시작으로 성당 앞 마당에서 지난 5월 21일부터 소존 야누디스 교수님으로부터 배우면서 제작한 성화를 전시할 예정입니다. 성화 전시회는 7월 1일까지 계속될 것이고,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입니다.

부산 성모 회보 성당

- 세례를 축하합니다 ▶ 지난 6월 16일(토)에 유상진 유아가 다니엘이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언자의 지혜와 믿음을 본 받아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많은 축복과 함께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 여름 수련회 ▶ 올해는 ‘좋은 말과 행동’이라는 주제로 초등 1부(7월 27~29일), 초등 2부, 중·고등부(7월 30~8월 1일), 신데즈모스(8월 20~22일) 여름 수련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재밌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우리 영적 생활에 큰 성장을 가져올 수련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성당 방문 ▶ 지난 6월 15일(금)에는 장신대 신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이 교수의 안내로 성당을 방문하였습니다. 정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천 성 바울로 성당

- 성당 축일 예배 안내 ▶ 성당 축일을 맞이하여 6월 28일(목) 오후 6시에 축일 대만과 및 아르토클라시아, 29일(금) 오전 9시에 축일 조과 및 성찬예배가 거행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함께 축일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간 예식

- 6월 29일(금) 성 베드로와 성 바울로 사도 축일
- 6월 30일(토) 12사도 연관 축일
 오전 9시 : 축일 조과, 성찬예배

